

■ 슈틸리케호, 2015 A매치 전적

11월 17일 vs 라오스	11월 12일 vs 미얀마	10월 13일 vs 자메이카	10월 8일 vs 쿠웨이트	9월 8일 vs 레바논	9월 3일 vs 라오스	8월 9일 vs 북한	8월 5일 vs 일본	8월 2일 vs 중국	6월 16일 vs 미얀마
?	?	3:0 승	1:0 승	3:0 승	8:0 승	0:0 무	1:1 무	2:0 승	2:0 승

한국 축구, 35년만에 최다승 보인다

<1980년 16승>

자메이카 평가전 3-0 완승... 올해 14승
11경기 무패... 4년만에 최다 무패 '-1'
내달 미얀마·라오스 상대 16승 '충분'

한국 축구가 올 시즌 슈틸리케 감독 체제 1년 만에 35년 만의 한 해 최다승을 눈앞에 뒀다.

올 시즌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자메이카와의 평가전에서 지동원, 기성용, 황의조의 골로 3-0으로 완승했다. 이로써 슈틸리케호는 올해 18번의 A매치 중 14번을 승리하며 14승3무1패를 기록했다.

내달 미얀마(11월12일·홈)·라오스(11월17일·원정)와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두 경기에 모두 승리하면 16승을 올리게 된다. 지난 6월 미얀마의 원정 경기에서 2-0, 라오스와의 홈 경기에서 8-0으로 승리한 바 있어 무난히 승수를 쟁길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 축구가 한 해에 16승을 달성하는 것은 1980년 이후 35년 만이다. 16승은 역대 기록으로는 1975년(26승)과 1978년(24승), 1977년(20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다. 한국 축구는 1980년 16승을 올린 이후 A매치 15승의 벽을 넘지 못했다. 1982년 15승7무9패, 1990년 15승6무10패, 3년 뒤에는 15승9무4패를 각각 기록했다. 1997년(15승5무3패)에도 15승 고지에 올랐지만, 그 이후에는 없었다. 2001년 이후에는 10승(2004·2006·2010·2011년)이 최고였다. 특히, A매치가 20경기를 훌쩍 뛰어넘었던 1990년대와 비교해 올해 20경기(미얀마·라오스전 포함)만에 16승이 예상된다.

8할의 승률은 역대로는 두 번째 기록이다. 1956년 대표팀은 11승1무1패를 기록하며 한 해 84.6%의 승률을 올린 바 있다. 지난 1월 열린 호주 아시아안팎 결승전에서 호주에 1-2로 진 것이 올해 유일한 패배다. 3월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1-1), 8월 동아시아안팎에서 북한(0-0), 일본(1-1)과 무승부를 기록하기도 했다. 슈틸리케호는 또 아시아안팎 호주전 패배 이후 무패 행진도 11경기로 늘었다. 2010년 10월 일본과의 평가전을 0-0으로 비기고 2011년 6월 7일 가나전을 3-0으로 이길 때까지 12경기 연속 무패(승부차기 패배 제외)를 기록한 이후 4년 만의 최다 무패 행진이다.

올해 치른 18경기 중 아시아안팎 결승에서 호주에 2골,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과 동아시아안팎 일본전

에서 1골씩을 내준 것을 제외하면 15경기를 실점하지 않았다. 슈틸리케 감독도 자메이카와의 평가전 후 "현재까지 올해 14승3무1패를 기록했고, 18경기에서 15경기를 무실점을 했다"며 "한국 축구의 과거를 잘 모르지만, 과연 이런 기록들이 예전에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올해 경기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라는 점에서 다소 의미가 퇴색될 수는 있지만, 과거에는 비슷한 상황에서도 이 같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작년 9월 이후 계속해서 발전해 온 슈틸리케호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앞으로의 발걸음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한편 최다승을 앞둔 슈틸리케 감독은 11월에 두 차례 A매치를 마지막으로 올해 '축구 농사'를 마무리한다. 지난 8일 쿠웨이트전과 13일 자메이카전에 나섰던 태극전사들은 모두 소속팀으로 돌아갔고, 이제 11월 A매치를 맞아 슈틸리케 감독의 호출을 기다리게 된다. 슈틸리케 감독은 11월 2일 미얀마 및 라오스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뒤 11월 9일부터 소집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6월 11일 vs UAE	3월 31일 vs 뉴질랜드	3월 27일 vs 우즈베크	1월 31일 vs 호주	1월 26일 vs 이라크	1월 22일 vs 우즈베크	1월 17일 vs 호주	1월 13일 vs 쿠웨이트	1월 10일 vs 오만	1월 4일 vs 사우디
3:0 승	1:0 승	1:1 무	1:2 패	2:0 승	2:0 승	1:0 승	1:0 승	1:0 승	2:0 승

이흥구·백용환 키워 낸 나카무라 코치 'KIA에서의 1년'

“개막전엔 1년 하다 잘리겠다 싶었는데... 한국어 공부해 선수들 얘기 들어줄 것”



“호랑이 군단”의 식구로 1년을 보낸 나카무라 배터리 코치. “과연 시합에 내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지도자는 새로운 고민을 시작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그라운드를 누빈 나카무라 코치는 알고 보면 일본에서도 소문난 명포수다. 재일교포인 나카무라(한국명 강무지) 코치는 1985년 주니치에서 데뷔, 선동열 전 KIA 감독과 배터리를 이루며 한국팬들에게도 유명세를 탔다. 주니치 주전 포수로 명성을 날렸던 그는 요코하

포근한 지도력으로 노하우 전달

호랑이 첫 '포수 동반 10홈런'

인생 상담해주는 지도자 되고파

마, 라쿠텐에서도 활약하며 2005년 은퇴했다. 요코하마, 주니치, 지바 롯데 등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던 그는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었다.

설레임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새로운 도전. 1년의 시간에 대해 묻자 그는 “처음에는 시합에 내보낼 수 있을까? 1년 하고 잘리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특유의 웃음을 지었다.

포수는 최근 몇 년 KIA의 취약한 포지션으로 꼽혀왔다. 차일목·이성우 고참들의 정체, 이흥구·백용환 신예 포수들의 더딘 성장 등으로 수비력과 함께 공격력 모두 부족하게 느껴졌던 자리였다. 그러나 올 시즌 '안방마님'들의 싸움에 눈길을 끌었다.

마무리 캠프를 거쳐 스프링 캠프를 지나면서 이흥구의 얼굴이 달라졌다. 실수 연발, 배터리 호흡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움츠러있던 이흥구가 달라진 표정으로 자리를 선점했다. 경기를 거

들하면서 수비력도 조금씩 향상됐고 무엇보다 숨겨왔던 파워를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여기에 시즌 중반 장총고 1년 선배인 백용환까지 가세하면서 더욱 흥미로운 경쟁이 전개됐다. '공격형 포수'로 꼽히던 백용환이 두 차례 만루포를 쏘아올리는 등 실력을 발휘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안방 전쟁이 펼쳐졌다. 타이거즈 첫 '포수 동반 10홈런'의 기록도 작성됐다. 신예 포수들은 올 시즌을 통해 경험과 자신감을 얻으면서 포수 고민에 시달리던 KIA에 희망을 남겼다.

나카무라 코치가 숨은 주역이다. 늘 밝은 표정, 자신감 있는 모습을 주둔한 그는 특유의 유머와 따뜻함으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자들에게 전달했다. 물론 강도 높은 훈련도 함께했다.

나카무라 코치는 “마무리, 스프링 캠프를 보내면서 답이 보이지 않았는데 올 시즌 우리 포수들이 잘 상대했다. 경험을 하면서 많이 배웠을 것이다. 물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은 많다. 볼 배합 등을 더 잘해나가야 한다. 그래도 내년 준비가 더 수월할 것 같다”며 “앞서 1년은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이유와 생각해야 하는 것들을 일일이 설명해야 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서 더 효율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포근한 지도력으로 어린 포수들을 끌어안은 그는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큰 고민을 덜었다. 하지만 지도자로서의 또 다른 고민이 남았다.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까지 끌어안고 싶은 나카무라 코치다.

나카무라 코치는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선수들과 소통을 하고 싶다.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주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도자에게 중요하다. 한국말을 공부하려고 한다. 말을 못 해주더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클럽 우선 지명 144명...광주·전남 11명

144명의 축구 유망주가 K리그 구단의 클럽 우선 지명을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K리그 클래식(1부리그) 12개 팀이 클럽 우선 지명으로 총 106명의 유망주를 선택했다.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서는 8개 팀이 38명을 지명했다.

클래식 리그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포함, 대전과 함께 가장 많은 11명을 지명했다. 제주(10명), 전북·부산(이상 9명), 울산(8명), 수원·인천(이상 7명), 서울·성남(이상 6명) 순이다.

K리그 챌린지에서는 충주가 가장 많은 9명의 이름을 불렀고, 안양 7명, 경남·상주 각 6명, 강원 5명, 대구 3명, 안산·부천이 각 1명씩을 지명했다.

올해 우선 지명을 받은 144명의 선수 중 내년 프로무대에 바로 진출하는 선수는 전남 유소년 클럽인 광양제철고의 한찬희를 포함해 총 9명이다.

지난해를 끝으로 드래프트 제도가 폐지되면서 올해 신인은 우선 지명과 자유선발을 통해 프로 유니폼을 입는다. K리그 구단 산하 유소년 클럽 출신 신인선수는 클럽 우선 지명으로 해당 구단에 입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단은 클럽 우선 지명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계약금

최고액은 1억 5000만원, 계약기간은 최장 5년, 기본급은 3600만원이다. 계약금 미지급 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000만원~3600만원에서 입단이 논의된다. 우선 지명 되지 않은 선수는 10월부터 자율적으로 소속 클럽을 포함한 모든 프로클럽과 입단 협의를 할 수 있다.

우선 지명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는 자유선발로 뽑는다. 각 구단은 S등급(계약금 최고 1억5000만원, 기본급 3600만원, 계약기간 5년) 3명을 자유선발 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A등급(기본급 2400만원~3600만원, 계약기간 3~5년), B등급(기본급 2000만원, 계약기간 1년) 선수는 무제한으로 영입할 수 있다.

◇광주 FC·전남 드래곤즈 2016년 클럽 우선지명 선수

▲광주(금호) : 김대준 조여승 정동규 조병철 임영욱 김주현 손민우 조현우 전성민 정문철 이기운 (이상 11명·대학진학) ▲전남(광양제철고) : 한찬희(프로직행) 김상현 김진성 이민형 이찬우 최병석 최익진 추정호 박종철 이종현 장성준 (이상 10명·대학진학)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카고 70년만에 '염소의 저주' 풀까

세인트루이스 꺾고 NL 챔피언십시리즈 진출

시카고 컵스가 정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컵스는 14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 4차전 홈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를 6-4로 꺾었다.

1차전 패배 이후 2, 3차전을 내리 따냈던 컵스는 이로써 시리즈 전적 3승 1패를 만들며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진출을 확정했다.

'가을 좀비'로 불리는 포스트시즌의 강자 세인트루이스는 첫 판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추락했다.

2003년 이후 12년 만에 컵스가 NLCS에 나가게 됨에 따라 과연 '염소의 저주'가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컵스는 1908년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1945년 염소와 함께 들어오려던 관客的 입장을 거부한 이후 107년 간 정상에 오르지 못해 '염소의 저주'에 고통받고 있다.

/연합뉴스